

해외여행·항공권·여권비자 수속
불교상지순례 전문
(주) 예초여행사
인국동로티리(조계사)종로구 수송동 5번지 동일빌딩3층
전화 : (02)733-3900

“자비심, 아름답고 소중한 이유”

며느리 3대 보살행현장 광명보육원

하늘거리는 나무재작 사이로 보일듯 맑은 공기. 그곳 광명보육원. 경기도 양주군 장흥면 일영유원지를 끼고 돌아 왜길로 골짜기 나아가면 고즈넉한 사할 하나가 눈에 들어온다. 도림사. 이 사할이 광명보육원과 한 울메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대웅전을 지나 20m쯤 걸어 들어가니 햇살을 받은 연못이 반짝거리며 찾아 온 이를 반긴다. 시방세계의 한구석 자리를 맡치고 부처님 품속에 안긴듯 초파일의 맑은 광명보육원은 평화롭기만 하다. 보육원 건물 원형 돌계단 밟개를 오르면 마주치는 석당. 그리고 오른쪽의 작은 건물 '무하문 화사랑방'이 마치 잘 짜여진 절집 분위기를 연출해 준다. 이곳엔 외길 불심으로 41년간 자비행을 쏟고 있는 3대(代)고부의 역사가 이어져 있고 있다. 설립자이자 초대 원장인 고택 서복조 시어머니(65년 타계)에서부터 2대 조준경 시어머니(82세)와 현원장 김영자 며느리(50세)가 가업을 이어오고 있다.

81년 조준경 할머니의 딸들과 결혼한 김원장은 시어머니와 함께 아이들을 돌봐왔다. 그후 8년의 세월이 지난 89년 '이제 보육원을 내가 맡아보지 않겠느냐'는 시어머니의 권유를 김원장은 흔쾌히 받아들였다. 평소 존경해 오던 시어머니가 해운 일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김원장은 알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5일 어린이날 열린 경기도 지역 아동시설단체 예능발표회의 실수를 떠올리며 즐거워하던 아이들의 관심사는 어느덧 부처님에게로 옮겨졌다. 며칠동안 장구, 징, 풍기리 등을 짊어지고 구슬땀을 흘렸던 예능발표회 준비도 즐거웠지만 선생님으로부터 부처님에 대한 얘기를 들으며 여유로운 하루를 보낼 수 있다는 것도 아이들에게는 신나는 일이다. 지금까지 이곳을 거쳐간 아이들은 어릴 적부터 1천여명이 넘는다는. 이들 중에는 벌써 대학을 바라보는 장년층도 있을 뿐더러 사업가에서부터 회사원, 공무원에 이르기까지



어린이날 있었던 경기도 지역 아동시설단체 예능발표회 준비에 여념이 없는 아이들. 바록 아픈 기억이 있지만 자신들을 사랑해 주는 사람들이 있어 결코 외롭지 않다.

41년간 거쳐간 1천여명에겐 이곳은 부처님 품같은 보금자리 친자식보다 더 가슴줄이며 키워온 아이들 흠없는 모습으로 사회에 나갈때 온갖 갖은 일은 보람으로 꽃핀다

김영자 원장은 오늘도 보육원 막내들이 진영이(6)의 재롱으로 시간가는 줄 모른다. 툭툭박박한 말투로 '나는 커서 스님이 될거야'라고 떠들어대는 진영이가 대견스럽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다. 그러나 흐릿해하던 표정도 잠시. 며칠 전부터 우울한 모습을 보이던 지원이(14)가 자꾸 마음에 걸린다. 4살 때 이곳에 온 지원은 항상 밝고 명랑했다. 그런데 중학교에 진학하고부터는 이따금씩 우울해 하곤 한다. 기억조차도 없는 부모가 보고 싶어서일까. 아니면 자신을 버렸다는 증오심에서일까. 보육원 아이들 33명은 모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아이들보다도 더욱 세심한 배려와 교육이 필요하다. 그것은 단순한 직업관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다. 아이들에 대한 순수한 사랑과 열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를 알면서도 김원장이 보육원 아이들을 맡게 된 것은 사실은 시어머니인 조준경할머니 때문이

지 다양한 직업 속에서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자신의 몫을 다하고 있다. 김원장의 시어머니 조준경 할머니는 주말이면 코가 땅에 닿을 듯 구부러진 허리를 곧추 세우며 아직도 아이들 밥상을 손수 차리겠다고 고집을 부린다. 주위 사람들의 민망에도 아랑곳하지 않는다. 63년부터 시어머니 밑에서 보육원 일을 시작해 74년 원장에 부임한 이후 며느리에게 물려주기까지 30여년동안 아이들과 함께 살아온 '세월의 습관'이 몸에 밴 것이다. 학교에서 돌아온 아이들이 맨 먼저 찾는 사람은 할머니. 아이들의 잘못이 있으면 자금도 회초리를 들고 '이 할미가 늙어도 네 녀석 버릇 가르칠 힘은 있다'며 호된 꾸지람을 내린다. 그러나 이내 풀어서서는 눈물을 흘린다. 친자식보다도 더 가슴 줄이며 키워 온 아이들. 어디에 내보내도 흠없는 자신의 아들 딸로 키우기 위해서 가끔은 엄해져야 하기 때문이다. 아이들은

할머니의 그런 사랑을 안다. 그래서 할머니를 의지하고 다닌다. 보육원 운영은 특성상 남자보다는 여자가 적합하다. 아이들 수만 말을 뿐 한 가정을 꾸리는 것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기 때문이다. 조준경 할머니는 아직도 자신의 시어머니 서복조 할머니를 잊지 못한다. 보육원을 처음 설립했던 서복조 할머니의 '보육원을 온화한 가정처럼 만들자'는 살아생전의 소신을 이어받아 지금까지 주방 일, 빨래, 청소 등 온갖 갖은 일반 도맡아 해왔다. 보육원에 들어온 후 박이리곤 몇 번 나가본 적이 없을 정도로 공생을 아이들과 함께 해 온 조준경 할머니의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남다를 수 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지도 모른다. 이들 며느리 3대에게는 어린 아이들에게 사랑을 쏟을 수 있도록 응원해주고 힘이 되어준 사람들이 있다. 남편과 자식들. 세 며느리의 남편들은 보육원에서 한술밥을 먹으며 여자들이 할 수 없는 보육원 구석 구석을 행기는 일에 전념했다. 특히 서복조, 조준경 할머니의 딸아들은 잠시나마 보육원 이사장직을 맡는 등 어머니의 뜻을 받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

자식이 부모의 가업을 잇는 예는 그리 흔치 않다. 부모가 이룩한 업에 대한 자식의 존경과 소명의식이 있지 않고서는 분명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작게 자손도 아닌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뜻을 이어 3대째 사회복지활동을 펼치고 있는 곳 광명보육원. 더욱이 이들 며느리 3대는 모두 신심깊은 불자로 이타행을 실천해와 지역민의 존경을 받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앞선 두 할머니가 겪어 왔고 또 현재 김원장이 겪고 있는 또 다른 어려움이 있다. 다름아닌 열악한 재정환경. 후원자들의 도움과 정부가 지원하는 보조비로는 아이들의 욕구를 마음껏 충족시켜 주기에는 부족함이 많다. 하지만 그런 속에서도 광명보육원의 자존심을 지켜주는 것이 있다. '오허려 조금 모자란 것이 낫다. 그 부분을 채우기 위해 노력하고 우리의 희망은 바로 거기에 있다'는 3대째 내려오는 광명보육원의 삶의 목표가 바로 그것이다. 광명보육원은 이 목표를 향해 오늘도 힘없이 서로를 감싸안고 내일을 향하고 있다.

글=현명우 사진=고영배 기자

초대원장 허서대광명보살

故 서복조 여사가 광명보육원을 설립하기까지는 남다른 과정을 거쳤다. 6·25 직후인 52년 63세 되던 해 지난 지 대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서여사는 당시 벽을 헐어 오는 사람들이 몰려들며 음식을 무료로 제공하기에 이르렀다. 전쟁직후라 먹을 것이 없었던 사람들을 그냥 뿌리치기에는 인장이 허락이 않았기 때문. 그러나 계속해서 사람들이 몰려들자 서여사는 아이들을 위해 자신의 남은 여생을 바치기로 결심하고 80여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현 광명보육원 자리에서 삶의 터전을 잡았다. 음악 2동을 지은 서여사는 이들에게 각별한 사랑을 베풀기 시작했다. 이들과 함께 눈물을 일구고 거기서 얻은

52년 음악 2동으로 시작 전쟁고아들 80여명 살터 보육원엔 도림사도 복원

발과 작물을 팔아 생계를 유지해 나갔다. 몇몇의 어른들을 제외하고는 전쟁고아가 대부분이었던 터라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다가 보다 체계적으로 아이들을 돌보아야겠다는 생각에 52년 당시 보사부로부터 채단법인 광명보육원 설립인가를 신청, 허가를 받았다. 보육원의 이름이 광명(光明)인데는 이유가 있다. 서여사는 신심이 돈독한 불자로 보육원을 설립하기 전까지 틈나는대로 한국 각지의 사찰을 순례했다. 그것도 큰 절보다는 형편이 어려운 작은 암자를 찾아다니며 자신이 가진 것을 아낌없이 보시했다. 그것을 안 어느 스님이 서여사에게 '사대광명'이라는 불명을 내렸고, 서여사는 자신의 불명을 따서 보육원 이름을 '광명'이라 지은 것이다. 광명보육원 바로 앞에 자리잡고 있는 도림사 역시 서여사가 복원한 사찰이다. 처음 장춘에 왔을 때 다 허물어져 가는 도림사를 보고는 안타깝게 여겼다. 보육원이 자리잡은지 4년이 지난 해 복원을 하고 주지스님을 모셨다. 서여사는 65년 작고하기까지 보육원 외에 지역 복지사업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결혼기념의 아이들과 지역의 어려운 일에는 마다하지 않고 앞장섰다. 그 공로를 기리기 위해 장흥면은 면사무소 앞에 공덕비를 세우고 지금도 서여사의 노고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있다.



1대 서복조 원장



2대 조준경 원장



3대 김영자 원장



▲부모의 사랑을 잃은 아이들이지만 사랑이 무엇인지를 잘 아는 아이들. 아이들에게 있어 이곳 광명보육원은 바로 사랑을 품는 자신들만의 보금자리이다.

▶광명보육원을 설립한 서복조할머니가 복원한 도림사는 광명보육원 식구들의 정신적 의지처이다.



◇며느리 3대의 자비행이 이어져 오고 있는 광명보육원. 신심 깊은 이들 며느리 3대는 골과 회랑을 심어 주기 위해 그들의 숭고한 '이시랑' 역사를 잇고 있다.